



‘책의 정신’ 강창래 지음

‘고전’ 만능주의 경계... 비판의 눈으로 책을 보라

“사람들은 좋은 책이라고 하면 대개 고전을 들먹이고, 고전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이 걸쳐 온갖 비평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널리 애독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 그러나 이 말은 믿을 게 못된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이 걸쳐 온갖 비평을 이겨냈다는 것부터 사실이 아니다. 비판을 숨기거나 비판에서 비껴가게 만들었던 것들 역시 고전 목록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책의 정신』 중에서

‘불멸의 고전’에 가차 없이 메스를 들이댄 책이 나왔다.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고전에 대한 환상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광고와 창의성을 다룬 베스트셀러 ‘인문학으로 광고하다’의 공동 저자인 강창래 작가가 ‘책의 정신’을 펴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책에 관한 책’이다. 책을 통해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책을 읽는 행위는 무엇이며 책에 담긴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저자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의 시공간은 사뭇 넓다. 공간적으로 동서양을 아우르고, 시간적으로

는 고대와 중대를 거쳐 근대와 현대까지 이른다. 물론 어떤 이도 책 세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럴듯한 소문과 편견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자는 ‘진실’과 뒤섞여 오래된 지혜로, 불멸의 고전으로 전승되어온 행태를 파헤친다. 오늘날 업선된 동서양의 고전 목록이 실은 오류와 소문 위에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로 혁명에 영향을 미친 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아닌 연애소설인 ‘신 엘로이즈’라고 말한다. 당시에 115쇄를 찍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신 엘로이즈’는 연애를 다룬 소설이다. 이 책을 계기로 보편적인 인권이 회자되었고, 프랑스로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위대한’ 저작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들의 저작에 계급주의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본다.

한 발 나아가, 그는 시몬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전제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은 ‘환경’보다는 ‘본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기존의 고전에 대한 관념은, 저자에 의해 뒤집혀지고 만다. 아니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에게는 불경스럽게 느껴질 것도 같다.

책이 지닌 최대의 장점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고전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부당한지 성찰하도록 하는데 있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고전 목록은 “일류대학의 입학시험”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독서운동열풍이 진정된 독서열풍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이에서 찾는다. 본래 독서란 즐거움 행위인데, 대학 입시라는 기제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자인 소크라테스를 잃게 만들면 민주주의자인 페리클레스나 솔론을 잃을 시간과 여유가 줄어들고, 엘리트주의자인 공자를 잃게 하면 평화주의자이며 하층민의 대변자였던 목자를 잃을 시간과 여유가 없어진다.” (앞바·1만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



풍수는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만드는 것

‘한국풍수인물사’

최창조 지음

풍수는 ‘좋은 땅 찾기’보다 ‘지금 여기를 고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다.

풍수지리학자 최창조 교수가 ‘한국풍수인물사’를 펴냈다. 그는 풍수를 발복(發福)만을 기원하는 이기적인 술법 풍수, 음택풍수가 풍수의 전부를 치부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고유의 ‘자생풍수’의 기원과 역사를 찾기 위해 선사시대 고분부터 ‘삼국유사’ 등에 나타난 전승 설화,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 기록을 참조한다. 또한 풍수의 대 원칙, 즉 ‘보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에 근거해 전국의 명산대찰을 뒤지고 북한까지 가서 답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저자가 밝혀낸 바는 역사에 기록되기 이전 시기에도 소박한 자생 풍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해의 허왕후릉에 있는 파사석탑은 풍수 비보(裨補)의 한 예이고, 북한의 안악 3호분은 석기 모양의 지형에 묘를 쓴 사대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머니의 품속이려면 병든 곳은 고치고 가꾸며 어려울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풍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점, 맹목적인 자연 보존 주장이나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환경 결정론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민음사·3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사마천과의 대화’

김영수 지음

중국의 사마천화회 정시 회원이자 ‘사기’ 전문가인 김영수 학자가 ‘사마천과의 대화’를 펴냈다.

책은 4년 전 공중파 라디오 방송 ‘니하오 사마천’의 대본이 토대가 되었으며 저자와 대담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총 54개의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사마천은 참다운 지성과 경험,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지혜로운 눈, 인간을 향한 끝없는 긍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사기’를 집필했다. ‘사기’가 인간을 위한 책이자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좌표를



제시해주는 고전인 것은 이 때문이다.

책에서 대화의 주제 역시 ‘인간’이다. 사리분별, 명예, 리더의 덕목, 죽음의 선택, 유머의 힘, 양보, 사랑, 용기, 법, 약속, 원칙, 관용 등 일상의 삶에서 화두로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표현하지 않는다. 직설적이지만 따뜻하게 묻고 답한다.

“할 일을 다하고 하늘에 맡긴다” “양보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다” 같은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새북·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을 읽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던지는...’

정수복 지음

사회학자이자 작가인 정수복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걷기’다. 그가 펴낸 ‘파리를 생각한다’도 시 걷기의 인문학’ 등은 오랜 기간 파리를 걸으며 체득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부류의 책을 섭렵하는 다독가인 그는 ‘책인시공-책 읽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펴내며 ‘책에 대한 책’ 연작을 시작했고 두번째 책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을 출간했다.

그가 던진 7가지 질문은 이렇다. ‘책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



가, ‘그래도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 읽는 습관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평생 얼마만큼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등이다.

저자가 던진 질문과 답을 읽으며 자신만의 독서법을 만들어 내는 건 독자의 몫이다. 저자의 질문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담고 있어 해답을 찾는 건 조금 수월하다.

(로도스·1만5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

‘13월’

전민식 지음

지난해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작가 전민식이 신작 ‘13월’을 들고 돌아왔다.

‘사람 냄새가 나는 소설, 훈훈한 소설’이라는 평을 들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은 정반대의 사람, 냄새와 거리가 먼 차가운 소설이라는 평이다.

‘13월’에서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음모 가득한 비정한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한 인간이 등장한다.



비밀 정부 기관의 음모에 의해 실험 대상으로 키워지며 감시당하는 주인공 재환과 그를 감시하며 점점 그의 그림자가 되어가는 여자 수인의 시점이 교차하며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책의 제목인 ‘13월’은 불안과 위기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소설 전반에 깔린 정서를 아우르며 재환과 수인이 함께하고 또 서로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시간을 암시하기도 한다. (북폴리오·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한국 대표작가들이 선택한 세계 문학

‘한국 작가가 읽은 세계 문학’

황석영 외 지음

황석영, 성석재, 김영하, 박민규, 천명관, 김애란 등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문학을 만났다.

문학동네가 ‘한국 작가가 읽어주는 세계문학’을 기획, 지난 2년간(2011년 5월~2013년 9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mhdn)를 통해 연재해왔던 ‘한국 작가가 읽은 세계 문학’을 출간했다.

여기에는 국내 문단을 대표하는 중견작가에서 젊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했다. 그만큼 글의 형식이 다양하고 개성적이다. 깊이 있는 비평과 에세이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짧은 소설, 등장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필자가 어떤 작품을 골랐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최대



의 즐거움이다. 감각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소설가 백영옥은 고전 ‘안나 카레니나’를, 내면을 응시하는 소설가 이해경은 ‘위대한 개츠비’를 선택했다. 개인의 삶에 생기는 균열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소설가 권해영은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독특한 개성의 작가 박민규는 ‘봄 소녀의 모험’을 읽었다.

작가들의 이 같은 ‘나의 읽기’는 독자들에 향한 ‘당신의 읽기’로 전이된다. 따라서 이 책은 ‘시대를 뛰어넘어 빛을 발하는 상상의 도서관’인 세계문학을 독자들이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친근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문학동네·8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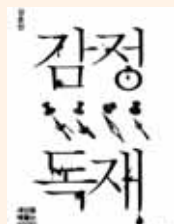
▲기계와의 경쟁=기술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파국화하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현대 기술의 발전 상황과 이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해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저자들은 해 지금의 교육 시스템과 정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19가지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티움·1만2000원)



▲한식의 배신=국내 최고 식품영양 전문가 이미숙 원장이 들려주는 제대로 된 한식 사용 설명서. 잡균이 득실득실한 된장, 잘못된 온도 조절로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발효식품, 고열압과 위궤양의 주범인 김치, 식중독과 알레르기 유발하는 젓갈 등 무분별한 한식 예찬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된 한식 습관을 바로 잡고, 한식이 제대로 된 건강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감정 독재=강준만 교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감정 독재’를 제시했다. 왜 대학 입시 제도는 자주 바뀌는지, 왜 우리는 누군가를 한 번 미끼 보면 끝까지 미끼 보는지, 왜 기업들은 ‘무조건 100퍼센트 환불 보장’을 외치는지, 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최악의 어려서는 결정을 하는지 등 흥미있는 주제들이 감정 독재 이론 속에 총 망라된다. (인물과 사상사·1만5000원)



▲수목인간=우리가 오랜 세월 길들여 살아온 나무의 가치를 역사적·철학적·생태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구 생명의 요람이자 공존·공생·성숙·포용 등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 곁을 지키는 나무를 통해 빠른 사유의 가치를 14개의 장으로 펼쳐낸다. ‘수목인간’은 저자가 자연의 한 매듭으로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생존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책세상·1만3000원)

▲아트 오브 메이킹 머니=지폐 위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실존 인물, 아트 윌리엄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범죄 다큐멘터리. 2009년, 미국에서 출간됐을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대중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윌리엄스에서 영화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고, 결국 덤피를 잡혀 체포되기까지 아트가 걸어온 행보는 자본주의 사회가 걸어온 모순의 행보와 겹음을 같이 한다. (페이퍼로드·1만4800원)

▲이종욱 평전=한국인 최초의 유엔 기구 수장이었던 이종욱 박사의 일대기. 이 박사는 결핵·두창(천연두)·에이즈·소아마비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제 사회에서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 ‘작은 거인’ 등으로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나무와 숲·1만5000원)

▲도도, 싹둑! =혼자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뒤죽박죽 째깍이 되고 엄마 손에 이끌려 미용실까지 가게 된 도도. 결국 뽀뽀뽀 파마머리를 하게 된 도도는 충격에 빠진다. 그런 도도를 위로해 주는 아빠, 자신의 일로 화를 내 주는 엄마를 보면서 도도는 스스로 마음이 풀린다. 공감을 얻은 아이의 기쁨을 훈훈하게 담고 있는 그림책이다. (사계절·1만1000원)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을까요?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못사는 것, 빈부의 차, 자원의 분배,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 등의 문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다뤘다. 경제 개념만을 다른 다른 경제 책들과는 달리, 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 있다. (어린이나무생각·1만1000원)

▲개뽀다귀에서 시작하는 아무진 도형 교실 =도형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실생활과 가까워서 더욱 재미있는 기하학의 즐거움을 전한다. 도형과 관련된 과제를 주변의 다



어린이 책꽂이

양한 현상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경험하게 한다. (길벗어린이·1만원)

▲별종별 아홉마가 들려주는 지구 이야기=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문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생물학 등 지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지구 생태계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어린이 과학 교양서. 풍부한 사진 자료와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창비·1만2000원)

▲마이 잉글리시 티처=동화 작가 박관희가 7년만에 내놓은 동화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표제작 ‘마이 잉글리시 티처’는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외 잘 나가는 학원 원어민 감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빚어낸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푸른숲주니어·9500원)

